

在家僧漫考

(一) 李在郁

머릿말

現今 鴨綠 豆滿兩江의南岸 即 北朝鮮六鎭의 故地山間地方에 在家僧이라는 一種特殊部落이 散在하여 殆히原始의生活을 營爲하고 있다는것은 너무나有名한 事實이다 그所謂在家僧의 由來에對하여는筆者의아는限 아즉定說이 없다 從來로 學界에잇어서나 市井에잇어서나 主張或은 傳說이 없지아니하며 또 이問題에對하여 相當한關心을 가지였는데도 不拘하고 아직까지 그正體를 究明하지못하였다는 事實에對하여는 學界를爲하여 甚히遺憾事라 아니할수없다 이러한意味下에서 簡粗、無頭緒의感이 不無하나 在家僧에關하여

若干論述하여 諸賢의 參考에供하고자한다.

一、北朝鮮의史的 概觀

지금 在家僧의 居住하는 咸鏡道一帶地方은 古代에잇어서는 現今의咸興一帶는 東沃沮、咸鏡道豆滿江沿岸一帶는 北沃沮의 根據地였다. 그다음 三國時代에 들어와서는 高句麗의 興起에依하여 그故地는 高句麗의 領有하는바 가되었으며 新羅眞興王時代에잇어서는 咸興의 北方黃草嶺以南의 地區는 新羅의 勢力範圍內에 들어갔다. 其後 渤海國이興起하여 新羅의北境을 侵犯하였고 이어서 契丹(遼)이 建國되

여 鴨綠江、豆滿江의 北方一帶를 領有하게되자 女眞族은 그窟穴을 喪失하고 大舉豆滿江沿岸에 避難하여 今曰의咸鏡南道를 占據하였 다. 그다음 高麗、李朝時代에잇어서의 情勢는 어떠한을가.

高麗는 半島를能히 流合하였으나 그北境은終始女眞族의 侵犯을 받았고 따라서 睿宗二年에 元帥尹瓘、副元帥吳延寵等은 十七萬의大軍을 거느리고가 女眞을大破하고 拓地定界하여 英州、雄州、福州、吉州、咸州、公嶮鎭、宜州 通泰、平茂等九城을 新築하여 徹底的으로肅清工作을 斷行하였다. 이肅清工作의 成功을 記念하기爲하여 其後、北靑에는 萬賴祠、利原에는 侍中臺、鏡城에는 元帥臺 慶興에는 征北祠를設置하여 春秋의祭祠를 繼續하여온다고 한다. 如斯히 從來、北境一帶에 隣居하여 邊民을 괴롭게하는 女眞族은 그根據地를 喪失하는等

高麗에게 徹底的掃蕩을當하였음에도不拘하고 女眞族은 依然히 連歲來侵하여 北境의情勢를 騷亂케 하였나. 그러므로 高麗時代에잇어서는 今曰의 咸鏡道一帶는 高麗、女眞의 爭奪地化하였고 따라서 今曰의咸興以北에地區는 結局 女眞族의巢窟化하였다고 보는 便이 穩當한觀察이라 하겠다. 다 음 李朝에들어와서는 國初에北境一帶에 孔鍾吉等七州를 設置한以後는 北境一帶는 形式上 朝鮮의 領有에歸하였으나 女眞族의 入寇는 依然不絶하였음으로 世宗十六

年에 金宗瑞를 咸吉道觀察使에任하고 國境一帶에 慶源、會寧、鍾城、穩城、慶興、富寧等六鎭을設置하여 防禦의 完璧을期하였다. 그러나 清太祖가 鴨綠、豆滿兩江의 北境을 平定하자、女眞族은다 시 難을避하여 大舉半島北境에殺到하여 國境地方은 又復그들의 侵犯을받으나 未久에 清太祖가 支

那中原에 進出함을따라 女眞族의紛爭은 大端緩和되어 國境의情勢는 小康保持하였다. 이제萬機要覽의 記錄을通하여 高麗、李朝時代에잇어서의 北境地方의情勢一般을 總括的으로 推測할 수 있다고 믿는다.

即 萬機要覽 六編開拓條에 『宗瑞密爲書以啓曰、高麗始祖力能流合三韓、威不及於朔方、只以鐵嶺爲界、其在睿宗、謀臣聘智、誘剪戒魄、遂置九城、施得旋失』이라하였고 그다음에 『世宗壬子、元狄哈攻斡木兒殺管禿父子、其黨凡察反律等、歛塞願處慶源近地、不許、敎兵曹曰、我國北、豆滿江、太祖始置慶源府于孔州、太移治于蘇多老、皆以重警基之也』於是、以金宗瑞爲咸吉道觀察使、設置慶興、會寧、鏡城、穩城、慶源、富寧、築城實民、凡六年而鎮之』라하여這間의消息을傳하고있다.

在家僧漫考

(二) 李 在 郁

二、由來

今日、咸鏡北道の 邊境一帶에 居住하는、所謂 在家僧은 一便 僧侶로 行世를 하면서 一便 俗人 과 같은 生活을 營爲하며、著妻 鞠子한다는 것은 周知하는 바이어니와、李能和氏는 朝鮮佛敎通史에 서 在家僧에 對하여、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海東僧史、有一奇事、即北邊之在家僧是、蓄妻食肉、俱爲無碍、可謂朝鮮之真宗也、咸鏡北道慶興、慶源、會寧、富寧、鏡城、穩城等沿邊各郡、特有一種僧侶、群聚居住于山谷中、自成村落、其所居村落名山門、必有公共佛殿一處、婚喪之禮、行於寺、號

憑할만한 決論을 얻기에는 아직 前途 遠遠이라 아니할 수 없다. 只今 左에 各說을 紹介檢討하고 저한다.

甲、奴隸說(僧軍說)

첫재、이 在家僧의 由來에 對하여、世間에 傳하는 所謂 僧侶說、或은 潘胡說以外에、宋의 徐兢의 所謂 奴隸說을 紹介하려고 한다. 卽 그의 著、高麗圖經에 依하면、

『在家和尚、不服袈裟、不待戒律、白紵穿衣、束腰卑帛、徒跣以行、間有穿履者、自爲屋室、娶婦 鞠子、其於公上、負載器用、掃除 道路、開治溝洫、修築城室、悉以 從事、邊鄙有警、則團結而出、雖 不閑於馳逐、然頗勇壯、其趨軍旅 之事、則人自裹糧、故國用不費而能 戰也、聞中間契丹爲麗人所敗、正 賴此輩、其實刑餘之役人、夷人以 其髡削髮而名和尚耳。』라 하여 所謂、在家僧은 袈裟를 입지 아니 하고、戒律을 가지지 아니하며、 邊境에서 軍務에 服하여、所謂 屯田

兵과 恰似한 種類의 것임을 말하고 잇는 듯하다. 다시 말하면、世間에 서、이 特殊階級을 在家和尚이라 指稱함에 至한 그 根據가 그들이 鬚髮을 髡削함에 잇으나、그實은 그 들이 刑餘之役人인限、이 階級을 在家和尚이라 할은 틀림없이 誤謬를 犯한 見解라고 보고 잇는 듯하다.

그다음、李能和氏는 在家僧의 由來에 對한 一說로서 그 著 朝鮮佛敎通史에서 世間에서는 이 在家僧의 由來를、仁祖十四年에 勃發한 清兵의 入寇、卽、丙子胡亂때에、清兵이 大舉南漢山城을 攻圍하여 四十五日만에 購和解圍한 故事에 關聯시켜、그當時、淸國은 그 購和條件의 一로서 朝鮮에 對하여、 그要求가 잇는 卽時로、大乳人三千人과 牝馬三千匹을、寧古塔에 入送하라는 要求를 하였음으로、北邊沿郡에 居住하는 女眞遺族으로서 이 要求에 應할計劃을 樹立한後、이를 保護하였고、現今、北

邊沿郡에 遷居하여 一特殊部落을 形成하고 잇는、在家僧의 由來가 여기서 發足하였다고 傳하는者가 잇다고 하였나. 그러나、이說은 所謂 在家僧이 高麗時代에 벌써 邊境에서、特殊 集團生活을 營爲하고 었었다는 記錄이 儼然히 現存하는 以上、坊間의 一俗說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徐兢의 刑餘之役人說은 그 記錄이 오래 인點과、當時의 政治的 特殊性을 吟味한다면、在家僧의 由來問題檢討에 關하는限、一顧할만한 說이라고 하겠다.

乙、僧侶說

다음에、李能和氏는、前揭書에 잇어서、다시 在家僧由來에 對하여 다시 一說을 紹介하였다. 卽、『又說、高麗尹權輿逐女眞、其 殘落者造寺院、以安處之、使之 奉佛、族居爲僧。』라 하였다. 只今、그由來에 對한 所說을 보건 女眞邊人을 僧侶로 轉換시켰다는데、그 根據를 찾고 저하는 說이

다. 또 盧宗氏는 그 著 淸津府 一方面茂山郡 會寧郡 鍾城郡 穩城郡 各管及 間島古蹟調查의 願末에서 『初 金志宗之 驅出女眞也、其窮不能徒去者、歸化則 斷髮區別之、既 斷髮則、屬之 寺刹、謂之 在家僧、戰時則 運搬軍需(軍幕等)而 在前驅、平時則、造 齋紙以供官用、極賤不可與平民同等故、土豪亦皆以 奴隸使之、諸般討案、罔有 紀極、距今前西北經 客使魚允中、革祛其賤役、然 慣習猶存故、官每欲復其身役則、渠自呼 訴于 京司、僅民造紙之役、然在 鄉役不得免焉。』라 하여 女眞遺民을 政策上 斷髮시켜、邊境各 寺刹에 分屬시켰다는데서 그由來를 찾고 저하는 說이다. 勿論、이 女眞遺族의 僧侶說도 充分히 在家僧由來問題檢討上 그對象이 될만한 說이라 하겠으나 이說을 肯定하기까지에는 아직 相當한 根據와 時日을 要하지 않을가 한다.

變爲僧』이라하였고 北路紀畧에
依하면、

「僧皆在家、聚妻生子、食肉飲
酒、謂之在家僧、世襲爲僧：」이
라하였다. 따라서吾人は 그由來卽
그正體究明에 있어서更一步한感이
不無하나 依然五里霧中에서 喞喞
는感이 저지아니하다. 그러나最後
의注意할만한 記錄은 水原儒生禹
夏永의著、時務策中에 보이는六鎮
僧徒議의 記錄일것이다 이說을以
上의諸說과 아울러 考察한다면在
家僧의 由來의 輪廓이 자못 鮮明
해질것이라고 믿는다.

六鎮僧徒議에依하면、

「北路豆滿江沿邊六鎮 及三甲列
邑 與彼界隔一衣帶而、水狹灘
淺、間有徒揭之處、彼我人民、
因其採獵、潛越往來之弊、種種
難禁、況且逐年開市、與彼通
貨、彼人之多年來往於市門者、
能爲我國之言、對面酬酢、少無
差誤、但其服着與我有異、故能
卞爲彼人、今所隱憂者、彼若換
着一白納潛越我界、混跡於本國
僧徒則、無以卞別、脫有僧俗中
不逞之徒、引入寺刹間販貨、
一過沿江之邑則、雖通行國中、
孰知其爲彼人也哉、何況逐利興
商彼我人情之所同一、有邊禁之
疎虞則、潛機轉入固其勢也」라
하여、在家僧의 由來問題檢討上、
저지아니한 示唆을주는 記錄이라
하겠다.

要컨대 現今北邊에群居하는在
家僧은 그種族問題에 있어서저
어도 女眞遺族이라고보는 것이妥
當하다고 믿으며 또 그들이在家
僧이라는 指稱을받으면서 一種特
殊部落을 形成하게되기까지의 過
程에對하여서는 速斷을不許하나
女眞族中の 逐利興商을 圖謀하는
者가 邊境의僧侶와 結託하여 僧
侶로 假裝하여入居하였다는事實
에서 그由來를 찾을수없을가한다
그러나 이在家僧의 由來問題는今
後學者들의 檢討研覈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到底히 速斷을못할것이
다.

在家僧漫考

(三) 李在郁

丙、藩說胡

以上에서 在家僧의 由來에 對한
諸說을 檢討紹介하는 便利上奴隸
說、僧侶說等으로 分立시켜、各
其그主要點을 紹介하여거니와 當
時의 社會的情勢로보아서 寺刹과
軍隊는想像以上으로 密接한 關係
下에 잇었음으로 이兩者를全然分
離하여서 在家僧과의 關係를檢討
함에는 너무나 無理가잇다고생각
한다. 只今 여기서 紹介檢討하려
고하는 藩胡說을말하드래도 이在
家僧의 由來에對한 諸說의 大多數
가 그種族問題에對하여서는 그見
解가女眞族에 一致함에도不拘하
고 구태여 여기서 藩胡說이라는
項目을設함은 蛇足의感이 不無할
줄아나 檢討의順序上 그由來가奴
隸關係에 잇지아니하고 또 僧侶
關係에도 잇지아니한다고 假定한
다면 이項目을設함은 全然無意味
하지는아니할것이다. 于先 北路
紀畧에依하면!

「……或曰在家僧、惟西北邊境
有之、舊之藩胡所住近處也：但
以擁髮而居我境故謂之僧耳、司
教之地、宜有以變之也、明川以
南始有僧。」이라하였으며 記錄
을通하여서는 藩胡의奴隸 或은僧
侶와의關係를 到底히把握할 餘地
가없고 在家僧의 正體는 何마알
아볼方途가 없다는感을준다 따라
서 學徒의興味는 더욱더우眞劍味

를 加하는것은 當然한歸結이라
고 아니할수없다.

以上에서 在家僧의 由來에 關한
諸說을紹介檢討의便利上奴隸說、
僧侶說、藩胡說로大別하여若干紹
介한바잇었거니와 畢竟 그正體를
究明하지못하였다는것은 肯定하
여야할事實이다. 그러나 다음의
記錄에依하여 그由來究明에 잇어
서저지아니한 暗示를 얻을것이다
北塞紀畧(孔州風土記條)에依하면
「山僧多在冢、挾妻食肉、子孫繼

在家僧漫考

(完) 李在郁

三、分布와 俗習

첫째, 北朝鮮에 있어서의 그들의 分布狀況을 보건대 前者에 있어서는도 屢說한바와같이 그들은 咸鏡道 興地一帶에서 集團生活를 營爲하고 있으며 그들은 大概 深山幽谷에 그住家를 가지는 關係上, 그들의 人口乃至戶數에對한 正確한 調査의 至難함은 勿論이다. 그러므로 故今 西博士의 調査報告를 紹介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報告는 그들의 人口乃至戶數에對한 全般의 調査가 아니며 또 最近의 調査가 아니나 于先여기들어 이問題에 關心을 가지는 諸賢의 參考에 供하고저 한다. 要컨대 最近에 있어서는 그들의 諸般社會的情勢 卽世運의 進展, 朝鮮內地人과의 交涉等의 影響으로 말미암아 漸次,

朝鮮內地人에 同化되어가는 傾向

富寧郡	富寧面	虛通洞	一〇九戶	一〇二人
富寧郡	石幕面	金降洞	四二	一七五
富寧郡	八乙面	靈泉洞	四七	二八五
	昌斗面	茂山洞	七〇	四二一
		豐山洞	一八	一〇六
		靈山洞	一〇	七三
會寧郡	昌斗面	蒼苔洞	五五	三八五
		鍾岩洞	九二	六八四
		魚雲洞	六八	二九八
會寧郡	碧城面	大德洞	三〇	一〇八
鍾城郡	豐谷面	豐溪洞	二八	一五四
		寺洞	八	五二
		總城郡 桑浦面 豐判洞 烏啼洞	五三	三〇九
		美浦面 月波洞 映月寺	一〇	六五
		豐橋洞 諸峯	三	一三
		慶興郡 上下面 松上洞 普賢谷	一〇	六三

이며 今日에 있어서의 純全한 在家僧의 主要住居地는 富寧郡 下南嶺寺, 鍾城郡 月下洞, 會寧郡 下魯雁洞, 靈山洞等이다. 이제 咸北一帶地方에 群居하고 있는 在家僧는 大畧 다음과 같다고 한다.

以上은 在家僧의 分布를 大畧 말한 것이요 그後 多少의 變動이 잇었다는 點을 充分 諒解하여 주 기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比較

의 最近의 報告에 依하면 茂山地 方一帶에 있어서는 그數가 漸次 減少하여지고 그勢力이 逐年 衰弱의 一路를 밟는다고 傳한다. 다음에는 그들의 習俗에 對하여 그大綱을 말한다면 그들은 職業으로서는 農業(火田)을 爲主하나 그居所를 殆히 山嶽重疊한 深山幽谷에 擇하는 關係上 그土地가 狹小하고 또 地味가 瘠薄하여 豐足한 生活는 到底히 期待할 수 없는 狀態이다. 그리고 平時에는 黃紙를 製造하여 公私 文書用에 供한다. 그리고 그들은 社會的 地位는 最下階級에 屬하며 一般平民과의 通婚은 勿論 甚之於 交際外 지 못하는 狀態이다. 또 各其家庭에는 佛像佛具가 없고? 單只 部落外에 寺院을 建立하여 各其守護의 任에 服한다. 그들의 衣服制度는 어떠한가 卽 그들은 婦女子의 裝身具, 衣服의 貌樣等은 距今約三十年前의 朝鮮內地人의 婦女子의 그것에 恰似하다고 傳한다. 그食事는 僧侶의 行世를 하면서도 肉食을 不禁하며 그住居를 深山幽谷

에 擇하는 點은 그들의 어느 部落에 가는지 第一에 먼저 點프이는 事實이라 한다. 이제 冠婚喪祭의 儀式에 있어서 그들의 習俗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들은 冠婚喪祭의 場所에는 招請의 有無를 勿論하고 全家族이 參席한다고 한다. 따라서 欽定滿洲源流考에 보이는, 「女眞飲食, 賓客盡携親友而來, 相近之家, 不召比隣主」라한 記錄은, 在家僧의 女眞族由來說에 만흥味를 加할을 알겠다. 只今 冠婚의 習俗에 對하여, 于先 말한다면 在家僧은 自己以外的 他族과는 絕對로 通婚을 하지 아니하고 嫁娶時에는 牛馬를 使用한다고 한다. 또 그다음 喪祭의 習俗을 보건대 一律로 火葬을 하며 그遺骨은 그것을 粉碎하며 五方에 散布하며 人間은 죽으면 靈魂은 釋尊의 側近에 歸依하는 것이라고 確信하는 關係이라고 한다. 그다음 이 在家僧의 習俗에 對하여 金基哲氏는 그의 著 關北大觀 中에서 詳細論述한 바 잇거니와 只今

그大要를 紹介한다면 다음과 같다 이記錄에 依하여, 在家僧의 由來와 그들의 日常生活의 全貌가 더 鮮明化할 것이다. 卽, 그들은 元來, 女眞族의 歸順한 種族이라 하여, 一般이 그들을 奴隸視하며, 그들은 部落全體의 共同寺刹을 建設하여, 部落全體가 奉祀하나, 佛經을 讀하는 者없고, 單只 佛前에 禮拜할뿐이며, 그들은 元來, 姓名을 가지지 아니 하였으나, 近來에는, 任意로 姓名을 지어 使用하며, 또, 在家僧을 僧軍이라고 하는 傳說이 잇으나, 何等의 實蹟이 없고, 武器를 가진 形跡도 없다 한다. 또, 在家僧은 音聲과 姿態가 朝鮮內地人과 달너, 逃亡은 極難하다 하며, 그住居의 入口에는 반드시 石牆을 設한다. 이것은 他部落과 區別하기 위한 것이며, 萬一 그區域을 넘어서 居住하면, 朝鮮內地의 兩班에게, 捕獲되어, 奴隸가 되는 事實等을 紹介하였다.

四、結言

以上에 있어서, 朝鮮北境一帶에 播居하여, 一種特殊階級으로서 時代의 風潮를 超越하고, 殆히, 原始의 生活를 營爲하고 있는 在家僧에 對하여, 所見의 一端을 披瀝하였으나, 現在에 있어서는, 아직 그 正體를 究明斷定할 何等의 根據가 없는 故로, 그斷案은 保留하거나, 자못, 北境에 이러한 特殊部落이 存在하여, 어떠한 意味에 있어서나, 이問題는 朝鮮學徒의 當面한 重要研究對象의 하나임을 알 어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最後에, 이 在家僧에 對한 概括的私見을 披瀝하여 든다. 卽, 在家僧은 그種族問題에 있어서는 女眞遺族이라고 보고 심으며, 그들이 今日과 같은 生活를 營爲하며, 在家僧이라는 指稱을 받는 動機에 對하여는, 逐利與商을 圖謀하는 女眞人이 그利害關係上, 北境列邑의 僧徒와 結託하여, 官憲의 監視를 避하고저 하였는데, 그原因을 查할 수가 없을가 생각한다. (끝)